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목사실)
Homepage :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강절 제1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시간을 다투듯 급하기 이를 데 없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요? 사방으로 뿔려있는 길을 보면서도 정작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던 저희들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생명이면서도 어느덧 죽음의 문화에 익숙해진 저희들입니다. 소리 없이 사랑이 저무는 이 쓸쓸한 도시에서 우리는 생명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이웃들을 귀찮아했던 저희들입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이들에게는 서릿발같았던 우리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이제 세상에 살면서 모질고 각박해진 우리 마음을 은총의 보습으로 갈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4:7-8 인도자

♠ 교 독 문 53. 계시록 21 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대표기도 I. 황경순 선생 II. 이용한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 370. 어둔 밤 쉬 되리니 다함께

성경봉독 I. 창4:1-16 다함께

II. 눅21:34-38 박효선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안색을 바로 하라 김기석 목사

II. 마음의 창을 열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238. 주님의 귀한 말씀은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59. 성전을 떠나 가기 전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덧과 같은 날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도라는 단 하나의 중심을 향한 순례 길로 삼으십시오.

다 함 께 : 참 좋으신 하나님, 은총의 샘물로 마른 목을 축인 저희들
이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
이 많아도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
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넉넉한 사랑으로 감싸안아
희망을 잉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 강좌(13)	로마서 강해(61)
기도 : 조병주 권사	기도 : 배삼순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임보람 선생 김재흥 목사	다함께 안경숙 집사

11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중수	박석희	구성실	장혜숙	문영혜
	헌금위원	한완식	김준호	이호원	조병주	최숙화	이동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조안 C. 존스가 자신이 간호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을 글로 쓴 것이 있다. 간호학교에 입학한 지 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강의 대신 간단한 문제가 수록된 시험지를 돌렸다. 수업을 착실하게 들어온 존스는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러나 마지막 문제에서 막히고 말았다.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시험문제는 뜻밖이었고 엉뚱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늘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이었다. 검정 머리에 키가 크고 나이는 오십대쯤 되어 보이는, 그러나 굳이 이름을 알려고는 하지 않았다. 결국 존스는 마지막 문제에 답을 쓰지 못하고 답안지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고 난 뒤 한 학생이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냐고 교수님께 물었다.

“물론이지.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항상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인사를 해야 합니다.”

존스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난 그때의 강의를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청소해 주시던 아주머니의 이름이 도로시였다는 것까지도.”

선생님의 시험 문제가 인상적이다. 그건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을 묻는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얼마나 주변을 애정으로 대하느냐, 그런 관심에 대한 문제였지 않을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아는 것은 사실 관심 밖이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은 바로 그 아주머니의 이름을 물음으로써 앞으로 간호사가 될 학생들에게 귀한 교훈을 심어 주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무심하게 지나치곤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말이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삶,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일 텐데... 얼굴만 알고 소 담 보듯 그렇게 지나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 그의 이름을 묻고 마음을 나누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우리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시루에 물은 채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시루,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시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루의 모습이 그리움으로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시루라 함은 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을 말한다. 자배기처럼 둥글넓적하게 생겼고, 대개는 짙은 회색을 띠고 있다.

지금이야 떡을 방앗간에서 하는지 ‘떡공장’에서 하는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가게에서 사 먹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집에서 떡을 하곤 했다. 시루에서 떡이 익는 풍경은 때마다 집안 가득 퍼지던 냄새와 함께 되살아난다.

시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다. 둥근 구멍이 그야말로 송송 뚫려 있다. 그런 시루에 물을 채운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시루에 물을 채우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시루에 물을 채우는 그 불가능한 일이 혹 가능해진다 하여도 끝내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다. 시루에 물을 채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길이 없다. 사람의 끝모르는 욕심을 시루에 물 채우는 일로 비긴 우리의 옛말이 참으로 명쾌하다.

새로운 사랑의 행위를 창조하라

우리가 한 행동들은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은 우리의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 사랑으로 응답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행위를 창조하는 것이며, 머지않아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 우리의 행동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일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과거의 우리가 현재의 우리를 만든다. —조지 엘리엇

■ **마/음/으/조/읽/는/글**

내 생명의 생명

내 생명의 생명이며,
내 몸을 끝없이 정결케 하오리니,
내 몸 사지에 당신의
생생한 어루만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모든 거짓됨을 씻어내게 하오리니,
내 마음 속 이성의 등잔에 불을 켜신
그 진리가 당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으로부터 모든 죄악을 몰아내도록,
그리고 내 사랑이 꽃피도록 하오리니,
당신은 내 가슴 속 가장 깊은 성소(聖所)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움직임으로 당신을 드러내도록
정성을 다하오리니,
당신의 권능이 움직임 힘을 내게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타고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김근종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김춘려 김중수 이순정 백승민 김필순 임승동 백혜숙
 고사일 최영선 김애경 박성수 최종원 김미순 박시내 안정숙 노정숙
 고광승 이춘희 임고운 박규석 박경선 한인철 조윤숙 최인환

월정헌금:

정원석 김현영 최성애 하현철 최주환 문복순 배삼순 황원순 고숙이
 임 영 정경례 조동길 배부례 전영자 이호원

감사헌금:

한인철 조윤숙 조병무 송양진 박찬정 백혜숙 한상의 정영선 최인환
 김필순 조관행 홍선희 김훈동 이경남 이명행 김혜선 하재두 김흥기
 이운화 백혜성 무명1

생일감사헌금: 장숙자 장재영

구도헌금: 김기석 김철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박 옥 식	차 혜 심	김 애 경	노 용 래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김 영 한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정 진 경	이 춘 희
가 나 안	유 영 남	문 영 혜	장 혜 숙	장 혜 숙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안 정 숙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박 흥 재	김 춘 려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오 성 희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오 복 순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정 은	이 명 희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김 정 섭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안 정 숙	안 경 숙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증 자	박 미 영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03년 -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

1. **대강절기** : 오늘부터 대강절기가 시작됩니다. 대강절기는 말씀과 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강절기의 상징색 보라는 근신과 재계를 뜻합니다.
2. **특별새벽기도회** : 내일(12월 1일)부터 3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하여 30분 경에 마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3. **당회** : 2003년도에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행적을 돌아보고, 2004년도 임원을 선출하는 당회가 12월 14일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4. **공천위원회** : 12월 7일 오후 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열립니다.
5. **봉사활동** : 봉사활동에 기쁘게 동참해주시시오.
 - 중묘급식봉사 - 12월 3일(수) 오전 11시 15분 / 중묘 앞
 -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 - 12월 5일(금) 12시 30분
6. **신앙실천** : 대강절기 기간 중 저녁에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 래야 새벽시간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올 수 없더라도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